

News

5대은행 예·적금 금리 올렸다

조선일보

5대 시중은행, 이번 주 들어 모두 수신 금리를 0.30~0.40%p 올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것

NH농협은행, 예·적금 금리 최고 0.40%p 인상… KB국민은행, 17개 예금과 20개 적금 금리를 최고 0.40%p 인상… 부산은행도 최고 0.5%p 인상

10년동안 나눠갚는 은행 신용대출 나온다… "빠르면 1분기"

뉴스1

은행들, 최장 10년 만기의 장기분할상환 신용대출 상품을 빠르면 1분기에 내놓을 것으로 전망… 금융당국, 분할상환 신용대출에 대해 DSR 산정시 실제 만기 적용키로…

10년 분할상환으로 전환하면 DSR 낮추는 한편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한도도 늘어나… 은행 관계자, 리스크 관리방안 보완해 상품 출시한다는 계획

LG엔솔 청약 첫날에만… 5대 은행, 마통 1.4조 증가

뉴시스

5대 시중은행의 마이너스통장 잔액 50조 7,200억원으로 집계… 전일대비 1조 3,718억원 불어난 규모

강력한 가계대출 총량 관리로 주춤하다가 IPO 사상 최대어로 꽉히는 LG에너지솔루션 공모주 청약 영향으로 분석… 신용대출 잔액도 140조 6,588억원 기록하며 급증

먹튀 논란 수습 안 됐는데… 카뱅 대표도 스톡옵션 행사

국민일보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작년 4분기에 보유한 스톡옵션 52만 주 중 수 만 주를 차액보상형으로 행사… 공시의무가 없는 차액보상 방식의 행사방법

사측 관계자는 카뱅을 잘 이끌어왔다는 성과 보상차원이라 설명… 다만 회사 안팎에서는 복수 계열사 경영진이 비슷한 시점에 대량의 스톡옵션 행사는 적절치 않다는 반응

'즉시연금 1심' 삼성생명 패소

매일경제

삼성생명, 고객 원고인 즉시연금 1심 소송에서 패소… 작년 10월 같은 소송에서는 이겼으나 이번에는 다른 판결

삼성생명 외에도 즉시연금 판매한 여러 생명보험사가 같은 소송에서 패소하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 업계 전체 통틀어 소송 대상 금액은 1조원대로 추산

어린이보험에 난청 특약 새로 추가될까

파이낸셜뉴스

어린이보험에 난청과 관련된 새로운 특약 적용될 전망… 현재 난청은 0~9세 인구 406만 명 중 약 1만 5,000명에서 발생하고 있어 이목 집중

흥국화재와 현대해상이 난청에 대해 배타적사용권 신청… 심의결과 시기는 아직 미정… 흥국화재, 영구적 증증도이상 난청 진단 시 최초 1회 한해 보장… 현대해상, 포괄적 보장

'역대급 IPO' 대표 주관한 KB증권, 주식·채권발행 모두 1위 오르나

이데일리

KB증권, LG에너지솔루션 상장 주관사 맡으며 ECM 1위로 뛰어올라… 미래에셋과 NH투자증권 추격에도 불구하고 해당 IPO건의 규모가 워낙 커 추월이 어렵다는 관측

다만 연말로 갈수록 케이뱅크, 카카오모빌리티 등 IPO 대어들이 남아있어 개인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중소형 IPO를 따기 위한 경쟁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

KTBNET워크, 30억 원 규모 자사주 매입 결정… "주주친화 경영"

연합인포맥스

KTBNET워크, 30억 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 결의… 이사회, 실적 및 투자 포트폴리오 등 회사 가치와 비교해 주가가 저평가되었다며 자사주 매입 결정

2020년 재무제표 기준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결정… 증권사와의 신탁계약을 통해 주식취득 진행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